

“홀대받는 근대 도자기 사명감 갖고 수집·연구”

■ 한국색채조형학회 최명자 이사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커서 무엇이 될래’라고 물었는데 ‘골동품을 모아 놓고 찍머리 해서 앉아 있고 싶다’고 대답했다.”

최명자(75) 한국색채조형학회 이사는 조선 말기 및 근대 도자기 3200점을 부산박물관에 기증해 최근 부산시에서 감사패를 받았다(본지 지난 20일 자 21면 보도). 최 씨가 기증한 도자기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 부산 합천 경주 안동 목포 등지에서 만들어진 근대 생활 도자기다. 근대 도자의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볼 수 있고 전통적 핸드 페인팅 기법, 대량 생산을 위한 스탬핑 기법과 전사 기법 등 근대 도자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어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최 씨를 만나 고려·조선 시대 백자가 아닌, 골동품으로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근대 도자기’를 모으고 기증한 이유를 물었다.

“할아버지가 골동품 수집가셨고 아버지가 그걸 소중히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집안 곳곳에 골동품이 있었죠. 마루 밑에는 백자, 책꽂이에는 고서와 옛 그림이 예사롭게 꽂혀 있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 어릴 때

부터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많았어요.”

최 씨의 골동품 사랑은 결혼을 해서도 이어졌다. “친정에 있던 골동품을 결혼할 때 제가 가져왔어요. 조선 자기, 신라 토기, 고서 등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사를 하다 보니 자꾸 파손되는 거예요. 후손으로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었죠. 25년 전, 저보다 골동품을 훨씬 잘 보존해

개인적 보관에 한계 느껴
부산박물관에 3200점 등
25년 전부터 꾸준히 기증

역사가 짧아 상대적 저평가
주변에 가치 알리기 앞장

출 부산박물관에 27점을 처음 기증했습니다.”

근대 도자기 수집은 그즈음 시작했다. 최 씨는 대구 효성가톨릭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뒤 37년 간 중·고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2006년 부산의 부곡여중 교장으로 퇴임했다. 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할 때 옛 기와 문양에 대한 논문을 썼다. 여러 가지 문양 사례를 찾기 위해 골동품 집에 수시로 다니다 근대 도자기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밥, 물감지를



부산박물관에 근대 생활 도자기를 기증한 최명자 이사가 부산 금정구 자택에 소장 중인 근대 도자기를 보여주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담아 먹던 근대 생활 도자기의 소박한 문양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었다. “근대 도자기는 역사가 길지 않아

다들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소홀히 다루니 금방 깨지고 사라지겠다 싶었죠. 나라도 모아 정리해서 빛을

보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겨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국을 찾아다니며 모은 근대 도자기를 사람들과 나누려 애썼다. 근대 도자기 한 점 한 점을 소중히 모아서 전시하기도 했고, 경남 산청박물관이 개관할 때 150여 점을 기증했다. 일본 도쿄대에서 근대 도자기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물어물어’ 최 씨를 찾아왔을 때는 가지고 있던 일본 근대 도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다 줬다. 최 씨 자신이 근대 도자기 문양에 대한 논문 3편을 써서 발표도 했다.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의 화두는 ‘어떻게 잘 늙을까’입니다. 근대 도자기를 모아 돈을 벌 생각은 애초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저 많은 사람과 도자기를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줘서 빛을 보면 행복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준 부산박물관, 부산시에 감사합니다. 기증한 근대 도자기를 소중하게 보관해주시 제가 오히려 상을 드려야 하는데.” 그는 내년 전시 두 개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수집한 늦은가락을 티스푼,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으로 가공해 선보일 예정이다. 능화판(한국 고서의 표지에 다양한 무늬를 박아 넣는 데 쓰는 목판)의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 전시도 계획 중이다. 그의 ‘옛것 사랑’은 계속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PNU 영어말하기 대회 국제학부 김민진 씨 대상

부산대 영어영문학과(학과장 전지현)가 주최하고 대학자유역량강화지원사업(ACE+)이 후원하는 제1회 PNU 영어말하기 대회(사진)가 지난 24일 부산대 통합기계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80여 명의 재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국제학부 김민진 씨가 대상을, 영어영문학과 윤규희 씨가 최우수상, 국제학부 정영수 씨가 장려상, pre-치의학전문대학원 강민수 씨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2인 팀 부문에서 국제학부 변정운, 기계공학부 김수암 씨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국제학부 김다영, 심리학과 이기현 씨 팀 ▷우수상 신문방송학과 정민섭, 산업공학과 정례지 씨 팀 ▷장려상 무역학부 금호진, 안남현 씨 팀.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모임

▶광산 김씨 부산중친회(회장 김선명) 12월이사회=2일 오후 3시30분 부산 부산진구 국립부산국악원 2층 입구 집결, 공연관람 후 인근 한우공장서 회의(오후 5시30분). 010-4701-4086

행사

▶재부대구성광고등학교송년의밤=6일 오후 7시30분 외식 1번가 연제점(부산 도시철도 2호선 1번가 출구). (051)866-0866, 010-3849-3842(사무국장)
▶부산정보고(옛 영남상고) 24회 졸업 40주년 축하행사=2일 오후 6시 부산호림 2층 컨벤션홀(동기회장 김왕섭). 010-8554-2203

부산미래과학자상 최우수에 이승훈·최태훈 씨

〈박사부문〉

청년 장기려 의학상엔
전공의 후원공·정영훈 씨

부산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13회 부산미래과학자상’ 박사 부문 영예의 최우수상은 이학 분야 부경대 이승훈(물리학) 씨가, 공학 분야 부산대 최태훈(전자공학) 씨가 각각 차지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30일 오후 부산미래과학자상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또 석사 부문 최우수상은 이학 분야 부산대 김옥순(화학) 씨, 공학 분야 부경대 김운환(고분자공학) 씨가 각각 뽑혔다. 대학생 부문에서는 신라대 전선주·김재덕(제약공학) 팀과 고교 부문에 부산과학고 2학년 우다



이승훈 씨



최태훈 씨



추원공 전공의



정영훈 전공의

연·박아영·오소현 팀이 대상을 차지하는 등 모두 52개 팀이 선정됐다.

박사 과정 이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인 이 씨는 영하 200도 이하 극저온에서 온도에 관한 전기저항 변화를 이용해 금 나노입자를 실리콘 표면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고효율 극저온 센서 개발과 연구에 기여했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7편을 발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학 분야 최우수상자인 최 씨는 상용화된 디스플레이 패널 공정에 고속 전환기술을 개발해 투명 디스플레이 구현 등 차세대 유력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연구에 성과를 거뒀고 SCI급 논문 20편을 썼다.

이와 함께 부산과기협은 성산 장기려 선생의 숭고한 의료 봉사정신

을 기리고자 마련한 ‘청년 장기려 의학상’ 수상자로 고신대복음병원 추원공(외과) 전공의와 동아대병원 정영훈(정형외과) 전공의 등 2명을 선정했다. 두 수상자는 바쁜 임상 진료에도 학술활동과 봉사활동 실적이 뛰어났다.

부산미래과학자상과 청년 장기려 의학상 시상식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미래과학자상은 ▷박사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석사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70만 원 ▷대학생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70만 원, 우수상 50만 원 ▷고교생 대상 50만 원, 최우수상 40만 원, 우수상 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오상준 기자



부경대·이탈리아 대학협의체 학술교류 MOU

해양환경보호 등 공동연구

부경대학교(총장 김영섭)와 이탈리아 32개 대학 간 해양과학분야협의체인 CoNISMa(총장 Antonio Mazzola·팔레르모대학 교수)가 ‘바다연구’를 위해 손잡았다.

부경대는 지난 29일 부산 남구대 연캠퍼스에서 CoNISMa와 학술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구해양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업을 위한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정식은 CoNISMa측이 먼저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이루어졌다. 이번 협정으로 세계수산대학(WFU) 설립을 통해 유엔 FAO(식량농업기구)의 설립 취지인 세계 식량 및 기아 문제 개선이라는 인류의 과제를 공동으로 풀

어가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CoNISMa(National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Marine Sciences)는 1996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정부(대학 및 과학기술평구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으로, 교수 등 700명의 회원이 해양 분야의 연구 진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본부는 FAO 사무국이 있는 로마에 있다.

부경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 등의 분야에서 학술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경대와 CoNISMa는 협정식에 이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주제로 심포지엄(사진)을 열었다.

임은정 기자 je09@kookje.co.kr

제보전화 : (051)500-5111 이메일 : opinion@kookje.co.kr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종원)은 최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중심의 선진 공간 도약을 다짐하는 ‘열린혁신 다짐대회’를 열었다.



부산 서구 대궁 한우·삼계탕(대표 최태범)은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해 백미 10kg 20포를 부민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정검다리족구회(회장 전경실)는 지난 26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 제1근린공원에서 일곱 번째 홀몸 어르신 쌀 나눔행사 및 회장배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부산광역시연합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 LPG산업협회는 지난 29일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KT&G 부산 상생유니트 소속 대학생 봉사단인 상생발룬티어는 지난 27일 외국인 교환학생과 함께하는 삼락생태공원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7일 의령군 의령읍 ‘해밀’ 농가 맞집에서 ‘2017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연찬회’를 개최했다.



부산 동구 수정2동(동장 백종록)은 지난 28일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저소득층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수정 행복나눔점방 리빙프리마켓 개소식을 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